

'멋과 맛의 고장' 임실

군, 식품안전관리수행 평가 우수기관 선정... 불량식품 근절에서 높이 평가

멋과 맛을 자랑하는 임실군이 불량식품 근절에 적극 앞장서면서 '위생 일번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군은 전북도에서 실시한 2018년도 식품위생업무 사업 평가에서 식품안전관리 수행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북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임실군은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식품제조판매유통차단 등 불량식품 근절에 적극 나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활동을 앞장서서 실시하는 등 타지자체보다 식품안전과 위생에 앞장섰다는 평이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관리 매뉴얼 제작과 앞치마와 위생모, 조리용 마스크, 테이블티슈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군민의 안전한 식품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 등이 크게 인정됐다.

여기에 임실치즈페스티벌과 임실치즈마을, 사선대, 옥성호 등을 찾는 많은 수확여행단과 관광객들이 찾는 주



임실군이 불량식품 근절에 앞장서면서 '위생 일번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예약 업소를 사전 방문하여 일일이 위생점검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이를 통해 '관광임실'에 더해 '깨끗하고 안전한 임실'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는 데 적잖은 성과를 거두면서 우수한 위생 행정을 펼쳤다. 앞으로도 군은 지속적인 임실군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업소환경정비 및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관내 900여개소의 영업주들이 자발

적으로 위생과 친절함 임실이미지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생행정서비스를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심 민 군수는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임실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하면서도 친절함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식품 위생관리와 관광객 서비스를 통해 멋있고,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가 있는 임실을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춘향골 딸기 본격 출하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이하 센터)는 지역에서 첨단농법과 고도화된 기술력으로 재배한 '춘향골 명품딸기'가 본격출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춘향골 명품딸기는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선진기반에서 재배되어 딸기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강해 소비 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센터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농가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설향 품종을 탈피하고, 올해부터는 금실, 메리퀸, 베리스타 등의

새로운 품종을 도입했으며, 이들 품종은 경도와 당도가 좋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또한 ICT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을 농가에 도입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더불어 농가소득을 20% 이상 크게 향상시켰다.

이밖에도 센터는 딸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탐프 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최고품질 과채(딸기)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을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추진해 맞춤형 딸기재배기술을 확대보



급하고 있다. 센터의 소득작물 담당은 "오는 12월에 스마트농업 관제센터를 구축해 관내 딸기 스마트팜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 및 데이터수집·분석을 실시하는 등으로 최적의 조건에서 최고의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청소행정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임실군이 깨끗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정착에 머리를 맞췄다.

이를 위해 군은 청소행정 관리 실태를 종합진단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행정 효율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한 간부급 직원과 읍·면장이 참여한 가

운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청소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생활폐기물 발생특성 및 수거·운반의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대 주민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모았다. 이어 각 개선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검토하는 한편 적용시기, 문제점 및 대책을 세우는 데 의견

을 나누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종량제봉투와 매립용,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상상별 배출형태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체계적 처리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포함했다. 정부의 노동환경 개선방침에 따라 환경미화원 주간근무를 확대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역시 심도 깊게 논의됐다.

심 민 군수는 "청소행정은 읍·면장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폐적하고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군립도서관이 인문학적 삶의 향상을 위해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인문학적 삶을 높인다'

순창군립도서관, '책 세상을 열다' 낭독회

순창군 군립도서관이 주민들의 인문학적 삶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순창군 군립도서관은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2018년도 '책, 세상을 열다' 낭독회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강연 제목처럼 '책으로 세상을 열어 참 좋은 순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차은숙 작가는 작년 초 풍산면으로 귀농한 문화책 작가다. <영화를 노래하는 초록 띠> 등 여러 권의 동화책을 출간했으며 올해

초 니어링 부부에 대한 인물이야기의 원고를 마쳤다. 강연을 통해 같은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작가와 독자가 한자리에 만나서 책 내용은 물론 책에 담지 못한 것들, 순창에서 살면서 느끼는 이야기를 나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창작 활동의 의지를 높이고 독자들은 이 지역 작가들의 책을 눈여겨 보고 맡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즐거운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도서 증정도 예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전화(650-5678)로 문의하거나 순창군립도서관 홈페이지(lib.sunchang.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소방서는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남원소방서, 지리산북부사무소 업무협약

남원소방서는 20일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와 지리산생태탐방체함을 통한 소방관 스트레스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은 화재·구조 등 각종 현장활동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을 받고 있는 소방관에게 북부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지리산 탐방 프로그램에 소방가족을 적극 참여시켜

자가치유와 심신안정을 위해 진행되었다.

남원소방서장은 "재난현장의 참혹한 상황에 노출된 최일선 직원들의 심리적 충격 해소와 스트레스발생 예방을 위해 심신치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의료원, 응급의료

전진대회 우수기관 표창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8년 제14회 응급의료 유공자 포상에서 응급의료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응급의료분야 전문종사자, 시·도 공무원, 관련예산사업 수행자 중, 임실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노력하는 자 또는 단체를 적극 발굴해 매년 응급의료전진대회에서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있다.

남원의료원은 응급환자 생명 및 건강보장강화, 전담전문의 체계 구축으로 필수 중증의료 강화, 재난 등 비상상황 시 응급의료 지원 및 대응체계 확립, 국가응급의료정보 신뢰도 제고 총실, 응급의료기관 적정 응급이송체계 구축, 응급의료기관 평가 우수기관 등에서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등 최선을 다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환자 안전과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시장, 문화행사로 활력 가득

순창군이 순창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문화행사를 열어 화제다.

군은 21일 황송주 순창군수와 정성균 의장을 비롯해 관내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어울림 잔치'를 열어 시장을 찾는 군민들을 환영했다.

이날 행사는 초창가수들의 축하공연과 상인, 군민들이 참여한 노래자랑 프로그램 등 추수해 추수를 끝낸 군민들의 울 한해 노고를 푸는 흥겨운 마당이 됐다.

라병호 상인회장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밀려 전통시장이 활기를 잃어 상인들이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행사로 오래간만에 시장에 활기가 도는거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황송주 군수는 "시장이 활기를 띠어야 순창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면서 "시장내 편의시설과 시설 보수를 통해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